

청일면(晴日面)

[위 치]

청일면은 동쪽으로 둔내면, 서쪽으로 갑천면, 남쪽으로 갑천면과 둔내면, 북쪽으로 홍천군 서석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연 혁]

원래 대관대리(大官垓里)에 있는 개나리굴(狗出窟)의 이름을 따서 개나리로 하다가, 그 음이 좋지 못하므로, 청일(晴日)로 고쳐서 청일면이 되어 울동(栗洞), 유동(柳洞), 춘당(春堂), 속실(粟實), 봉명(鳳鳴), 병지방(兵之坊), 청일(晴日)의 7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관대(大官垓), 추동(秋洞), 전촌(筓村), 삼거리(三巨里), 병지방, 울동, 초현(草峴), 유동, 춘당, 봉명, 속실의 11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이후 1973년 행정관할구역의 재조정으로 갑천면의 유평리, 갑천리, 고시리, 신대리의 일부가 청일면에 편입되고, 대관대리, 추동리, 전촌리, 삼거리, 병지방리, 울동리 등이 갑천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갑천리(甲川里)

신라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긴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이 태기산(泰岐山)에 주둔하면서 냇물에 갑옷을 씻었다 하는 갑천(甲川)가에 마을이 있으므로 갑천(甲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종짓말, 황골, 북네미, 절바우골, 다라목이, 터골을 병합하여 갑천리라 하였다. 갑천면에 속했다가 1973년 행정관할구역 재조정으로 청일면에 편입되었다.

[갑천1리]

가마골 [골] 봉덕초등학교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갈밭골 [골] 절바우골을 올라오며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세바우골 [골] 맹매기바우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우가 마치 개 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릿말 [마을] 갑천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큰 길 옆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시골 [골] 차조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고시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고야나무골 [골] 들어갔다못나오는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고야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고개 [고개] 만박둔지에서 하마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갯길이 골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묘지 [터] 절바우골에 있는 것으로, 마을의 공동묘지 터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기곡동(基谷洞) [마을] → 텃골

노푸네골 [골] 설통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노풍원이라는 분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더래이 [골] 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더래이와 작은더래이가 있다.

더령산 [산] 절바우골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덕샘이골 [골] 노푸네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덕삼이라는 분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봉덕초등학교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뒷골과 작은뒷골이 있다.

뒷골 [골] 북네미 고야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들어갔다못나오는골 [골] 짜작나무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골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박둔지 [터] 텃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맹매기바우골 [골] 덕샘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제비와 비슷하게 생긴 맹매기가 이 골에 있는 바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세바우골’이라고도 한다.

바른골 [골] 움무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바르게 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우네미골 [골] 움구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바우골과 통한다.

방치골 [골] 고시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나무골 [골] 갈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큰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 이름이다. 약 20년 전에 그 나무를 베었다고 한다.

북네미 [마을] 갑천1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비독재 [고개] 안말에서 큰고시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암동(寺岩洞) [마을] → 절바우골

새말 [마을] 갑천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다른 마을보다 늦게 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신촌'이라고도 한다.

새보들 [들] 새로 만든 보에 있는 들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 [골] 바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설통을 많이 설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촌(新村) [마을] → 새말

싸리밭골 [골] 움무골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싸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갑천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윤걸이죽은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구대골 [골] 북네미에서 마암리를 올라가며 오른쪽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움구대골과 작은움구대가 있다. 절바우골과 통한다.

움무골 [골] 절바우골 이진철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움무골과 작은움무골이 있다.

원골 [골] 절바우골에서 텃골로 통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서 중심이 되는 큰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윤걸이죽은골 [골] 호랭이밭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윤걸이라는 사람이 이 골에서 굴러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마암리와 통한다.

응달말 [마을] 갑천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바우골 [마을] 갑천1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공동묘지 자리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박골’, ‘사암동’이라고도 한다.

절박골 [마을] → 절바우골

종짓말 [마을] 갑천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짜작나무골 [골] 약물탕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조밭골 [골] 북네미 뒷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텃골 [마을] 갑천1리 7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기곡동’이라고도 한다..

호랭이밥터골 [골] 화수네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이 골에서 사람을 잡아 먹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수네미골 [골] 바우네미네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바우골 만박둔지와 통한다.

[갑천2리]

강선대(降仙臺) [마을] 갑천2리 7반에 속하는 마을로, 전설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검두골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갑천면 하검두(하대리)와 통하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수골 [마을] 갑천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산비둘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골과 물골 사이에 있다.

다리목이 [마을] 갑천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다른 마을에서 보면 이 마을로 달이 꼭 차서 넘어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월항’이라고도 한다.

물골 [마을] 갑천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동’이라고도 한다.

상보들 [들] 마을 위에 있는 보에 논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골 [마을] 갑천2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동(水洞) [마을] → 물골

옹장골 [골] 솔골에 있는 골짜기로, ①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아이가 죽으면 이 골에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골 [골] 강선대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월항(月項) [마을] → 다라목이

응골 [골] 강선대에 있는 골짜기로, 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줄골 [골] 구수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연이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터골 [골] 솔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황골 [마을] 갑천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이 골에 곡식을 심으면 노랗게 잘여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 골의 흙 색깔이 다른 곳의 것보다 노랗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시리(古時里)

고시리 지명에 대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옆 마을인 신대리보다 먼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청두루, 솟대배기를 병합하여 고시리라 하였다. 갑천면에 속해 있다가 1973년에 청일면에 편입되었다.

가래나무골 [마을] 고시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큰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운데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호랭이죽은골과 큰골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갈강소 [소] 청평교 밑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까치박골 [골] 약물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까치봉 [산] 까치박골 정상의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고개가 가파르다.

깍은재 [고개] 큰고시에서 둔내면 화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가파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삭현’이라고도 한다.

늪둔지 [골] 잣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늪처럼 땅이 질어서 밭이 빠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거리 [터] 큰고시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골 [골] 장귀철 댁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고시 [마을] → 큰고시

덕재 [고개] 범바우골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독고리봉 [산] 가래나무골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주봉산’이라고도 한다.

뒷골 [골] 큰고시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귀철 댁 옆에 있다.

물개기 [골] 늪둔지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대리와 통한다.

범바우골 [골] 청뚜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나타난 골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삭현(削峴) [고개] → 작은재

숫대배기 [마을] 고시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숫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숫대는 마을에 효자들이 많아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효죽촌’이라고도 한다.

숫골 [골] 뒷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범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바우골 [골] 청뚜루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여우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집넘애 [골] 물개기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육모봉 [산] 큰고시와 작은고시 사이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봉우리가 육각형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태장묘골 [골] 주봉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태장 벼슬을 한 이씨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래소 [소] 청뚜루 마을 앞 냇가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소에 자라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고시 [마을] 고시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큰고시에 비해 마을이 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수바우 [바위] 청뚜루와 숫대배기 사이에 있는 바위로, 바위에 장수 발자국이 두 군데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채나무골 [골] 김영주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젓밭골 [골] 장귀철 댁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주막거리 [터] 큰고시 입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봉산 [산] → 독고리봉

지치라우 [고개] 큰고시에서 둔내면 화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길이 험하다고 한다.

진잔등 [산] 약물탕골에서 까치박골로 이어지는 산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등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들봉 [산] 가래나무골 위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차들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뚜루 [마을] 고시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 앞에 있는 소(沼)가 깊어서 파랗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를 ‘청소’라고 불렀다고 한다. ‘청평’이라고도 한다. ②예전에 도보로 다닐 때, 강릉에서 황성을 갈 때는 봉평에서 화동리, 고시리를 거쳐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었는데, 그 당시 이 길은 나무가 우거져서 사방이 어두웠으나, 고시리 청뚜루에 오면 푸른 들과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평(淸坪) [마을] → 청뚜루

큰고시 [마을] 고시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고시리에서 마을이 큰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대고시’라고도 한다.

큰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수골 [골] 큰고시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땅에서 솟아올라 붙여진 이름이다. 그 옆에 작은 수골이 있다. 이렇듯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수통’이라고 부른다.

평판 [터] 범바우골 중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약 1,500평의 평평하고 넓은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랭이죽은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화채바우 [바위] 청뚜루 앞 도로 옆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상여 뚜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효죽촌(孝竹村) [마을] → 숫대배기

봉명리(鳳鳴里)

부엉이가 살았으므로 부엉골 또는 봉명이라 하던 것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청상아터, 구점, 범무리, 명리치, 화랑터, 사실목을 병합하여 봉명리라 하였다.

곱돌재 [고개] 사심목에서 갑천면 병지방리 샘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곱돌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저비 [마을] → 구점

구점 [마을] 범무리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산이 아홉굽이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저비’라고도 한다.

능골 [골] 사심목에서 곱돌재를 가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능골과 작은능골이 있다. 춘당2리 석벽골과 통한다.

덧바우골 [골] 뒷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돼지덧을 놓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명리치 이경복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집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바우 [바위] 발교산 밑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에서 동학군이 망을 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리치 [마을] → 명리치

망리치고개 [고개] 명리치고개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동학군이 이 고개로 넘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리치 [마을] 사심목 위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망리치’라고도 한다.

명리치고개 [고개] 명리치에서 홍천군 동면 화방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망리치고개’라고도 한다.

맹천골 [골] 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약수가 나오는데 예전에 소경이 이 약수를 마시고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깥구점 [마을] 구점 아래 마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송 [마을] 안구점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나무골 [골] 작삼목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매기 [마을] → 범무리

범무골 [골] 범무리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범무리 [마을] 화랑대 위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매기’라고도 한다.

사심목 [마을] 봉명리 초입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사냥꾼들이 사슴을 몰아 이곳에서 잡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실목’이라고도 한다.

사실목 [마을] → 사심목

삼밭떼기 [터] 천상아터에 있는 터로, 예전에 삼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경골 [골] 능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춘당2리와 통한다.

소명골 [골] → 숨은골

숨은골 [골] 명이치 이경복 댁 앞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명골’이라고도 한다.

안구접 [마을] 구접을 포함한 윗마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우재골 [골] 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흥천군 서석과 통한다.

작삼목골 [골] 사심목에서 명이치를 올라가며 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당골 [골] 소경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춘당2리 석벽골과 통한다.

절골 [골] 안구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폭포가 있다고 한다.

좌상바우골 [골] 곱돌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천상아터 [마을] 구접 위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당골 [골] 작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면 병지방리 샘골과 통한다.

피난골 [골] 곱돌재 옆에 있는 골짜기로, 동학군이 이곳에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밭에서 화살촉이 나왔다고 한다.

학무암 [바위] 절골 아래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에서 학이 춤을 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허방골 [골] 여우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호랑이바우 [바위] 범무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화랑대 [마을] 사심목과 범무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속실리(粟實里)

①골짜기 안에 있으므로 속실이라 하였다. ②예전에 조농사가 잘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촌, 주막거리, 황장곡, 봉막을 병합하여 속실리라 하였다.

광산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국사랑(菊沙郎) [마을] 화전골과 주막거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굽은골 [골] 피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굽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강소 [소] 주막거리 회관 뒤쪽에 있는 소(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내촌(內村) [마을] → 안속실

눈물고개 [고개] 물운담이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이 피난 길에 눈물을 흘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락골 [골] → 다래골

다래골 [골] 주막거리 위 먼드래재를 가며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다래와 머루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락골’이라고도 한다.

단풍바우골 [골] 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단풍나무가 많고 예뻐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거리 [마을] 안속실 위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마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국사랑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골 초입에 서낭당이 있었다.

먼드래재 [고개] 홍천군 서석면과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등령’이라고도 한다. 정상에 서낭당이 있었다.

물안골 [골] 안속실 김덕순 댁 앞에 있는 골짜기로, 큰물안골과 작은물안골이 있다.

물운담이 [돌무덤] 사재골 위에 있는 돌무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구할미가 가락지를 잃어버려 찾느냐고 자꾸 돌을 하나 둘 옮기다 보니 돌무덤이 되었다고 한다. 돌무덤 옆에 서낭당이 있다.

밤나무골 [골] 주막거리 위 먼드래재를 가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별막 [골] 성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별을 많이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막’, ‘큰골’이라고도 한다.

별아홉골 [골] 주막거리에서 먼드래재를 올라가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별 아홉 통을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봉막(蜂幕) [골] → 별막

사재골 [골] 안속실 김덕순 댁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람골 [골] 별아홉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락골 맞은 편에 있다.

사무실골짜구니 [골] 먼드래재를 가며 물공장(샘물나라)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금속광산 사무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골 위에 있다.

성골 [골] 치마바우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 안속실

안속실 [마을] 속실리에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내촌’이라고도 한다.

애기당 [당] 애기소 옆에 있던 서낭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에 빠져 죽은 애기의 넋을 위하여 만들어진 당이라고 한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이 당을 없앴다고 한다.

애기소 [소] 중소 위에 있는 소(沼)로, 애기라는 기생이 이 소에서 죽어 붙여진 이름이다.

용소 [소] 국사랑 앞 내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이 승천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운무산(雲霧山) [산] 홍천과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이 높아서 항상 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님이재 [고개] 별막 위에 있는 고개로, 원님이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난리 때 원님과 애기라는 기생, 그리고 중이 함께 피난을 가다가, 눈물고개에서 원님은 피난 길이 한스러워 눈물을 흘렸으며, 중소에서 중이 빠져 죽었다고 한다. 애기소에 이르러 원님이 애기를 나두고 가려고 “이 소를 건너면 데리고 가고, 그렇지 못하면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자, 애기는 따라 가고 싶은 마음에 건너 뛰다가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후 원님은 성골에서 3일을 머무르다가 원님이재를 넘어 홍천 삼년대로 갔다고 한다.

원등령 [고개] → 먼드래재

정골 [골] 광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보습을 만들던 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롱고개 [고개] 단풍바우골 위에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주막거리 [마을] 현재 마을회관 주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소 [소] 눈물고개 위에 있는 소(沼)로, 이 소에 중이 빠져 죽어 붙여진 이름이다.

지르매재 [고개] 황정골에 있는 고개로, 지르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 지르매재와 작은지르매재가 있다.

치마바우 [바위] 황정골 위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치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 벌막

통골 [골] 원님이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통골과 큰통골이 있다.

피나무골 [골] 황장골에 있는 골짜기로,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전골 [마을] 춘당초등학교 뒤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황장골 [골] 애기소 위에 있는 골짜기로, 황장목으로 쓰는 나무가 이 골에서 나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황정골’이라고도 한다.

황정골 [골] → 황장골

신대리(新垓里)

봉복산 밑에 새로 된 마을이므로 새터 또는 신대(新垓)라 하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골, 동문밖, 한나루터, 들메지, 여내, 당거리를 병합하여 신대리라 하였다. 갑천면에 속해 있다가 1973년에 현재와 같이 청일면에 편입되었다. 72년도까지도 9개 반이 있었으나, 화전민 정리로 인하여 차츰 인구가 줄어 현재는 4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는골 [골] 장승배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가는골과 작은가는골이 있다. 그 유래는 모른다.

가래소골 [골] 박야암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가래소골과 작은가래소골이 있다.

가삼밭골 [골] 홍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가삼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무목 [터] 양지말에 있는 산의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을 지켜 곶을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곶목’이라고도 한다.

곶목 [터] → 고무목

공동산 [산] 말령이고개 밑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낙수대 [골] 큰성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폭포가 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노장골 [골] 여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느진목 [고개] 낙수대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큰성골 안에 있으며, 산등이 경사가 심하지않고 완만하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리목 [마을]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자연부락명으로, 한자로는 다림목(多林目)이라고 쓴다.

당숲 [터] 신대분교 아래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염을 그린 남자의 화상도 있었다고 한다.

대행바위 [바위] 신대분교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벌을 많이 친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실암 [산] 큰성골 안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도실암, 구도실암으로 나뉘어진다. 산나물이 많이 난다. 신도실암은 길이 험하나 구도실암보다 지름길이라 그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돈니미 [골] 가삼밭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지쪽으로 해가 일찍 든다고 한다.

동문밖 [터] 성골의 산성 동쪽 밖에 있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들메지 [터] 양지말 동북쪽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30호가 살았다고 한다.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르나, 예전에 우마차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길이 험해서 소금, 곡식을 등짐으로 날랐다고 한다. ‘등메지’라고도 한다.

등메지 [터] → 들메지

마구할미바위 [바위] 작은성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 마주 보이는 바위에 마구할미가 빨래줄을 매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방골 [골] 샘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말을 키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레이골 [골] → 말령이

말령 [골] → 말령이

말령이 [골] 가는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 화동과 통한다.

예전에 말이 넘어 다니던 고개 또는 외부와 통하는 마지막 골이라 해서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한다. ‘말레이골’, ‘말령’이라고도 한다.

무당바우 [바위] 천제사바우 위쪽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이 바위 틈에다 천제사를 지내기 위한 술을 담겼다고 한다.

물아가리 [터] 작은성골 안에 있으며 물이 모이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버덩처럼 생긴 이곳에서 넓게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개기재 [고개] 읍지말에서 큰고시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박야암 [골] 청진암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박야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우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법당골 [골] 한남대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봉복사 법당과와통하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보매기골 [골] 성골 초입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를 막은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골 [골] 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사태골과 작은사태골이 있다.

삼구골 [골] 신대분교 뒤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삼을 삼았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양바우 [바위] 큰성골 안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양이 그 바위에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 [마을] 신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로 생긴 마을 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골 [골] 화장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샘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덕재 [골] 가삼밭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덜기(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녀골 [골] 어두어니골 안 왼쪽으로 난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골짜기가 서쪽으로 향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제보자는 추측한다.

성골 [골] 큰성골과 작은 성골을 함께 아우르는 골짜기명으로 성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터 [터] 성골의 성이 있던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하지 이후에도 비가

안 오면 이곳에서 군수가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성터에 누가 묘를 써서 그렇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확인했다고 한다.

송소아리골 [골] 성골로 접어들어 우측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예전에 호랑이가 마을 부인을 잡아먹고 이 골에다 머리만 남겨놓았다고 하며, 소나무도 많았다고 한다.

수리봉 [산] 어두어니 입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리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두라우 [골] 한남대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골에서 대장간에서 쓰는 숫돌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고운 숫돌이 아니고, 거친 숫돌이 난다고 한다.)

숫가마골 [골] 송소아리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화동과 통한다. 예전에 이곳에서 숫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신대리 중앙 양지쪽에 있는 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양촌'이라고도 한다.

양촌 [마을] → 양지말

어두어니 [골] 속실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해가 일찍 지며, 한 여름에도 오후 4시경이면 어두워지고 다른 곳보다 어둡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내골 [마을] 양지말 서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연천동'이라고도 한다. 이 골을 넘어가면 유동1리가 나온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연천동 [마을] → 여내골

우무골 [골] 한남대 안 법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말 [마을] 음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응달말'이라고도 한다.

응달말 [마을] → 음지말

장승배기 [터] 신대분교 위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뒤골 [골] 절안으로 접어들어 좌측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봉복사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법당골이라고도 한다.

절안 [골] 봉복사로 난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좌우로 많은 골짜기가 있다. 절로 가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낭골 [골] 큰가래소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승들의 배설물이 그 곳에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터] 음지말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새터 주막거리라 한다.

주태바우 [바위] 큰성골 안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太’자가 바위에 적혀 있었다고 하며, ‘주’자도 적혀있던 것이 지워졌을 것이라 한다.

천제사바우 [바위] 산천제사를 지내던 바위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에서 삼월 삼짓날 수상5개리(예전 갑천면에 속해 있을 때 면사무소 위에 있는 마을로 유평리, 갑천1,2리, 고시리, 신대리) 사람들이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내기 보름 또는 이십일 전에 금줄을 매며, 금줄을 매면 바위 윗마을에 사는 신대리 사람들은 빨래도 가급적 삼가 했다고 한다. 신대리에서 주관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며 1972년도까지 지냈다고 한다.

청둔이 [골] 한남대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청진암 [골] 마방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청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탑둔지 [터] 탑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현재 탑이 있는 위치에다 절을 지으려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현 봉복사터로 누가 옮겨놓았다고 한다. 이에 중은 부처님이 점지하신 터라고 해서 현재의 터에다 봉복사를 지었다고 한다.

핏골 [골] 공동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피 농사가 잘되고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핏골과 큰핏골이 있다.

한나무터 [골] → 한남대

한남대 [골] 홍천군 서석과 통하는 큰 골짜기와 길목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한남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제보자는 추측하고 있다. ‘한나무터’라고도 한다.

해운암 [골] 정낭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해운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30년 전만 해도 구들장이 있었으며,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다.

홍골 [골] 절뒤골 위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전에 아릅드리 소나무가 많았다.

화장골 [골] 절안으로 접어들어 우측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이 죽으면 예전에 그곳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채봉 [산] 한남대 있는 홍천군 서석과 통하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 정상 우측에 상여의 뚜껑인 화채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동리(柳洞里)

마을에 버드나무가 많았으므로 유동이라 하였다 하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애고지, 셋말, 무랑골, 농거리를 병합하여 유동리라 하였다.

[유동1리]

간촌(間村) [마을] → 셋말

고무래봉 [고개] 셋말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곶고개 [고개] 고시리와 유동1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고개가 가파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롱재 [마을] 달롱재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롱재 [고개] ①달롱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달맞이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춘당1리와 통한다.

무당바우 [바위] 함봉이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무당소 [소] 무당바우에 있는 소(沼)를 가리킨다.

무랑골 [마을] 셋말을 가며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안골이라고도 한다.

무래이 [골] 애고지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무래이와 작은무래이가 있다.

물안골 [마을] → 무랑골

미러기재 [고개] 유동1리와 유평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고개 정상에 미륵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들골 [마을] 유동1리와 유동2리를 함께 아우르는 이름으로, 예전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벼루골 [골] 무래이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지골 [골] 무래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 얼마 전에 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식기류 및 석물이 나왔다. 현재 서낭당이 있다. ‘사직골’이라고도 한다.

사직골 [골] → 사지골

상보 [보] 유동1리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보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달롱재 앞에 있다.

새둔지 [마을] 응달말 좌측으로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새보 [보] 유동2리 시장들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보로, 셋말에 있는 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쌔말 [마을] 셋말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마을에 쌔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셋말 [마을] 마을이 응달말과 애고지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간촌’, ‘쌔말’이라고도 한다.

속모탱이 [마을] 애고지 중심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선바우골 [골] 함봉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애고지 [마을] 셋말 안쪽에 있는 마을로, 낮은 산줄기가 큰 내를 따라 내려가서 굽이를 이루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마을에 물방아가 두 군데 있었다고 한다.

우렁바우보 [보] 애고지 밑에 있는 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를 막은 곳의 바위가 우렁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동1리 논에 용수를 공급한다.

응달말 [마을] 마을이 응달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불당골 [골] 무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불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터] 애고지 함봉이와 큰골 갈림길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봉산 [산] 애고지 큰골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신대리 여내골과 경계를 이룬다.

중미들 [들] 애고지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질재골 [골] 질재등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질재등 [산] 무랑골과 고시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등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제당골 [골] 무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애고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불당골 [골] 무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불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배이 [골] → 함봉이

함봉이 [골] 애고지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함봉이와 작은함봉이가 있으며, 큰함봉이를 안함봉이라고도 한다. ‘한배이’라고도 한다.

[유동2리]

개울말 [마을] 마을이 냇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 [마을] 시장 뒤에 있는 마을로, 골 안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미약골 [골] 개울말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유동3리에 있는 능산골과 통한다.

버덩말 [마을] 마을에 넓은 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뚝개 [마을] 시장 뒤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서낭당보 [보] 유동2리 시장 들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를 설치한 곳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타 마을에서 유동2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누소 [소] 유동2리와 유동3리 내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냇가에 소를 매어 놓았는데, 소가 물에 빠져서 동생이 줄을 당겼으나 자꾸 끌려가자, 누이가 거들었으나 소용이 없다. 소가 깊은 소(沼)에 빨려 들어가자 누이도 동생과 함께 그 소에 빠져서 죽었다고 한다.

오누소보 [보] 오누소에 있는 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동3리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유동천 [내] 유동리 마을 앞으로 흐르는 내를 가리킨다.

장터 [터] 시장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5일장이 서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하보 [보] 오누소보 위에 있는 보로, 유동2리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아래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행교골 [마을] 예전에 학교가 있던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동3리]

굽은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굽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끝말 [마을] 도리박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본부락 끝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끝밭이 [마을] → 도리박골

농거리 [마을] 유동3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농작같이 깎아지른 벼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산골 [골]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원래 100개의 골짜기를 아우르고 있는 곳에 능을 쓸 수 있는데, 이 골은 모두 99개이므로 능이 들어서지 못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현리 수아지와 통한다.

대방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매우 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군무덤과 말무덤이 있다.

도둑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도둑이 은거하고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리박골 [마을] 마을이 본부락 끝에 있는 마을로, 왕골을 매는 도리박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끝말’, ‘끝밭이’라고도 한다.

두째골 [골] 첫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두 번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밥자리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호랑이가 염호장의 며느리를 물어다가 이 골에서 잡아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째골 [골] 두째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세 번째 있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썰기골 [골] 능산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과 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능산골 안에는 썰기골이라 붙여진 이름이 많다.

아래쓰레밭골 [골] 능산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웃쓰레밭골 [골] 아래쓰레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아래쓰레밭골 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첫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첫 번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능산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현리 수아지와 통한다.

유평리(楡坪里)

갑천(甲川)가에 늪이 많고 들이 열렸으므로 늪드루라 하였는데, 1914년 미러기, 새말, 소구니, 열안이, 왓둔지를 병합하여 유평리라 하였다. 갑천면에 속해 있다가 1973년 행정관할구역 재조정으로 청일면에 편입되었다.

곧고개 [고개] 유평리에서 유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늘에뜰 [뜰] 양짓말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키는 것으로, 느릅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래기 [마을] → 미러기

미러기 [마을] 유평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유동1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고개가 있는데, 이 재에 미륵바우라고 불리우던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가 쓰러져 있는 쪽의 마을은 안 좋은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상대 마을쪽으로 밀었다고 한다. 이렇듯 자기 마을에 재앙이 없도록 이 돌을 서로 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미륵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래기라고도 한다. 현재는 이 바위가 없어졌다.

미러기고개 [고개] 미러기에서 유동리 장터로 넘어 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새말 [마을] 유평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다른 마을에 비해 마을 형성이 늦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구니 [마을] 유평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소(沼)가 여러 곳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군리’라고도 한다. ②진한의 태기왕이 박혁거세에 쫓기어 태기산으로 갈 때, 여러 곳에 소수의 병사를 배치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③중국 왕소군의 후손이 이 곳에 와서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군리(沼君里) [마을] → 소구니

송정 [터] 현재 방앗간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양짓말 [마을] 유평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열안이 [골] 양짓말과 미러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열안이고 작은열안이가 있다.

왓둔지 [마을] 유평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기와를 구웠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밭에서 와편이 나온다고 한다.

움무골 [골] 열안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평들 [들] 유평리에 있는 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유평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응달말과 소구니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통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로 넘어가면 유동3리가 나온다.

초현리(草峴里)

마을 지형이 새우처럼 생겼으므로 새우개, 또는 오포(鰲浦)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아지를 병합하여 초현리라 하였다.

개동박골 [골] 초현리 마을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나도백이 [골] 논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위장병에 좋은 약물이 나온다.

낙수대 [폭포] 새대기 밑에 있는 작은 폭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넘산골 [골] 안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을 통하여 청일시장 및 학교를 넘어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성가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조그마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논골과 작은논골이 있다.

농베루 [벼랑] 새우개에서 청일로 가는 옛 길의 벼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이곳으로 농을 짚어지고 가다가 벼랑에 떨어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벼랑이 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데기 [골] 장구목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능산골 [골] 동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유동3리와 통한다.

도롱골 [골] 장구목이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도롱골과 큰도롱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썰기도롱골이 있다.

동박골 [골] 개동박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당골 [골] 누데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돼지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된봉 [산] 심지가네미골 위에 있는 산으로, 산이 높고 가파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수아지 시온성교회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림골 [골] 수아지 들어서면 왼쪽으로 있는 첫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정오철 댁 뒤에 있는 골짜기다.

매봉재 [산] 말림골에 안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뱀바우 [골] 초현리 1반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지당골 [골] 나도백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대기 [골] 형제봉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골에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와편이 나왔다고 한다.

새우개 [마을] 초현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1반과 2반 사이에 있는 고개가 마치 새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서낭당고개 [고개] 새우개에서 유동리로 넘어가는 옛 길에 있던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뒷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가마골 [골] 심지가네미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수나지 [마을] → 수아지

수리바우 [산] 허성구 택 맞은 편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산에 있는 바위에 수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아지(誰我知) [마을] 초현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 어떤 사람이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가, “내가 여기 있는 줄 누가 알겠냐”고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혼자 일생을 보내면서 항상 한탄하길, “누가 내 여기 있는 줄을 알겠느냐”고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나지’, ‘피난 골짜기’라고도 한다.

심지가네미골 [골] 장구목이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산골 [골] 남진네 앞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래안산골과 웃안산골이 있다.

앉은바우 [바위] 뒷봉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넓어서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누소 [소] 새우개 앞 내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누이가 이 소에서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누이가 개울 건너에 있는 진달래꽃을 꺾으려고 내를 건너가다가 이 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동생이 구하러 갔다가 함께 죽었다고 한다.

장구목이 [골] 설통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장구처럼 길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이 깊다. ‘짐생이골’이라고도 한다. 병지방리와 통한다.

장승백이 [터] 허성구 댁 뒤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장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예전에 이 골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산골, 넘산골, 누데기, 새대기, 돼지당골을 함께 아우르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중미 [산] 산지당골 아래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짐생이골 [골] 장구목이를 달리 부르는 말로, 예전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골짜기 [마을] → 수아지

형제봉 [산] 넘산골 위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봉우리 두 개가 마치 형제 같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춘당리(春堂里)

①서낭당이 있으므로 춘당이라 하였다. ②인동 장씨가 마을을 개척하면서 봄에 집을 지었다 하여 춘당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재울, 굴아우, 주막거리, 둔더기, 서벽골, 주주리를 병합하여 춘당리라 하였다.

[춘당1리]

개수원 [마을] 예전에 마을에 소나무와 흙을 이용해 만든 보가 있었던 관계로, 물이 나가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 [골] 푸산밭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살던 이진사가 자신이 직접 ‘골말’이라고 지어 불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 [골] 옥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이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악밭골 [골] 두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옥을 썼다고 한다.

광암리(廣岩里) [마을] → 너렁바우

너렁바우 [마을] 마을에 넓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암리’라고도 한다.

다리골 [골] 너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다리골과 작은다리골이 있다.

두렁골 [골] 골말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돌두렁을 이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산 [산] 개수원 앞에 있는 산으로, 춘당2리 용장골에서 태어난 용마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산에서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산들 [들] 마산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물골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앞골 [골] 장개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 초입에 묘가 여러 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부리 [골] 관악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치골 [골] 너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박달나무가 많으며, 골이 험하다.

봉곶이 [골] 사재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주위에 있는 여러 개의 봉우리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사재울 응달쪽으로 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냥터골 [골] 천상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사냥하던 목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재골 [골] 불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재울 [마을]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재월’이라고도 한다.

사재월(寺在月) [마을] → 사재울

상촌(上村) [마을] 사재울에서도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골 [골] 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뭇들어가는골 [골] 바람부리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경사가 심해 소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오소리바우골 [골] 바람부리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오소리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옥밭골 [골] 봉쥌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옥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굽이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승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무골 [골] 개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가골 [골] → 장개골

장개골 [골] 텃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장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가골’, ‘장조리’라고도 한다.

장조리 [골] → 장개골

점침지미골 [골] 바람부리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점쟁이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주리 [마을] 날가리를 주주리한 것과 같이 마을이 산과 내로 막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주리재 [고개] 춘당리와 유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주리 옆에 있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중촌(中村) [마을] 상촌 아래에 있는 마을로, 중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집골 [골] 점침지미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상골 [골] 곳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주위에 있는 골의 봉우리보다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사재울 양지쪽으로 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골] 서낭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집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 텃골과 작은텃골이 있다.

푸산밭이 [골] 큰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풀을 해서 삼(대마)을 많이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촌(下村) [마을] 중촌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춘당2리]

광산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광산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골 [골] 굴바우 석이버우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금광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굴바우 [마을] 마을 앞에 굴바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아우’, ‘굴암리’라고도 한다.

굴아우 [마을] → 굴바우

굴암리(窟岩里) [마을] → 굴바우

다리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고개 [고개] 주막거리에서 굴바우로 넘어가는 고개로,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 고개에 있는 서낭당은 1999년 2월에 새로 지은 것이다.

당고개 [마을] 마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덧골 [골] 주막거리에 있는 골짜기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둔덕이 [마을] 마을이 둔덕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형국이라고 한다.

둔덕이들 [들] 둔덕이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미골 [골] 주막거리에 있는 골짜기로, 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벽골 [마을] 마을에 층암절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이버우골 [골] 굴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석이버섯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골이라고도 한다.

순애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순애라는 과부가 혼자 살다가 죽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장골 [골] 주막거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용이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골에서 용마가 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용마는 춘당1리 마산에 가서 죽었다고 한다.

움무골 [골] 둔덕이에 있는 골짜기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승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장승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면 병지방리와 통한다.

주막거리 [마을]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당골 [골] 석벽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이병수, 남, 38세, 갑천1리 토박이)
- (홍순철, 남, 65세, 갑천1리 토박이)
- (장석준, 남, 81세, 고시리 태생으로 40년 전에 갑천1리로 이주)
- (김봉수, 남, 62세, 갑천1리 토박이)
- (한상철, 남, 69세, 갑천1리 토박이)
- (김찬수, 남, 73세, 공근 태생으로 30년 전에 갑천2리로 이주)
- (김영철, 남, 66세, 갑천2리 토박이)
- (최인학, 남, 72세, 고시리 토박이)
- (윤창보, 남, 57세, 고시리 토박이)
- (김영주, 남, 47세, 고시리 토박이)
- (장귀철, 남, 77세, 상대리 태생으로 22세에 고시리로 이주)
- (황우근, 남, 65세, 봉명리 토박이)
- (이규직, 남, 68세, 흥천 태생으로 9세에 속실리로 이주)
- (김덕순, 남, 70세, 흥천 태생으로 5세에 속실리로 이주)
- (박만태, 남, 81세, 속실리 토박이)
- (이규직, 남, 68세, 흥천 태생으로 9세에 속실리로 이주)
- (박만태, 남, 81세, 속실리 토박이)
- (오용성, 남, 72세, 신대리 토박이)
- (조규진, 남, 74세, 신대리 토박이)
- (이봉한, 남, 62세, 유동1리 토박이)
- (김종식, 남, 76세, 춘당리 태생으로 45년 전에 유동1리로 이주)
- (조영용, 남, 79세, 평남 태생으로 18년 전에 유동1리로 이주)
- (권오찬, 남, 71세, 유동3리 태생으로 유동2리에서 거주)
- (김종하, 남, 71세, 유동2리 토박이)
- (윤춘선, 남, 81세, 유동1리 태생으로 유동2리에 거주)
- (이규상, 남, 64세, 유평리 토박이)
- (이배곤, 남, 70세, 평남 태생으로 56년 전에 유평리로 이주)
- (정남용, 남, 70세, 안흥 태생으로 45년 전에 유평리로 이주)
- (허성구, 남, 66세, 초현리 토박이)
- (신명순, 남, 60세, 초현리 토박이)
- (염주호, 남, 73세, 춘당1리 토박이)
- (함상임, 남, 78세, 춘당2리 토박이)